

# 漁村이 나라 먹여 살린다

## - 선진수산물 아이슬란드를 가다

천 금 성 | 전 원양어선 선장/해양작가

### 불모(不毛)의 얼음섬을 일구어낸 바이킹 후예들

레이카비크(Reykjavik)는 아이슬란드의 수도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어항이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아이슬란드의 주요 생계수단은 수산업임을 알 수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반만큼이나 되는데도 인구는 겨우 28만여에 불과하고, 그 중 10만 명 가량이 레이카비크에 거주하면서, 그 반수 이상이 고기잡이와 어획물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민 연평균소득은 3만 달러 이상.

1983년 8월 말, MBC-TV 해양 다큐멘터리 '의지와 도전의 현장-오대양을 가다' 제작팀의 하나로 북위 66도선상의 그 섬나라를 찾았을 때, 고기잡이배들은 모두 출어중이어서 부두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앞 광장을 빙 둘러 울타리를 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는 흰 가운 차림의 여인네들이 전량 미국을 비롯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완제 필렛(Fillet)을 박스에 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당시 유럽은 연일 40°C를 오르내리는 높은 기온으로 벌써 몇 십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혹서(酷暑)가 이만저만 아니어서 그것을 피할 요령으로 일정이 뒤로 잡혀있던 북극해의 아이슬란드를 먼저 취재하기로 스케줄을 변경하였는데, 그 피가 지나치게 맞아떨어져서 휘몰아치는 차가운 바람과 흩날리는 눈발로 당장 목을 움츠리는 신세

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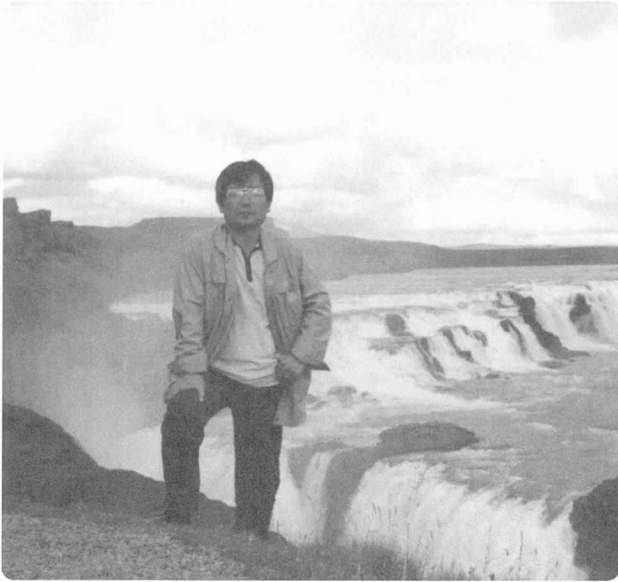
열악한 것은 기온만이 아니었다. 섬 일주도로의 내륙부터가 곧장 가파른 산비탈로 이어지는 고유의 화산섬이어서 토양이 척박하기 그지없었는데, 특히 2,000m가 넘는 화나달슈누퀴르달 고봉(高峰)을 비롯한 대소 모든 산들이 만년빙하로 뒤덮여 있을 만큼 국토의 70% 이상이 불모지였다. 남태평양의 타히티가 '지상의 낙원'이라면, 북대서양의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지상의 버려진 땅'인 셈.

그 같은 불모의 화산지대에서 아이슬란드 인들은 도대체 무슨 묘책으로 세계 상위권의 부(富)를 일구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 문단으로서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1955년 H. 라스네스)까지 벌써 반세기도 더 전에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안 생길 턱이 없었다.

### 화산과 지진의 땅에서 생계수단은 수산업뿐

아이슬란드를 부국으로 만든 요인을 들라면 지금 이 순간도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살아있는 화산섬이라는 점과 그리고 수도 레이카비크를 거대한 어항으로 만들고 있을 만큼 인근 해역이 천혜의 어장이라는 점이다.

먼저 화산 이야기부터 하자. 산들은 모두 만년빙하로 덮여 있는데, 그 지하에는 부글부글 용암이 끓고 있다는 것은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아이슬란드 '황금폭포'에서의 필자.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레이카비크 항을 내려다보고 있는 뒷산만 하더라도 구두 밑창을 뚫고 발바닥이 후끈거릴 만큼의 뜨거운 지열이 발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산재 틈 사이사이로는 언제 어느 때 불똥을 튕겨낼지 모를 용광로 속 쇠뿔 같은 시뻘건 용암이 헛바닥을 날름거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최근까지만 해도 남쪽 웨스트만 섬(1973년 1월)과 북쪽 가우스티히키(1981년 1월) 등지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일대를 용암과 화산재로 완전히 뒤덮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내와 끈기의 아이슬란드 인들은 사방도 연기를 내뿜는 폭발 직전의 화산을 바라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었다.

“걱정해본들 무슨 소용 있겠소? 이곳은 어차피 우리 국토이고, 그리고 여기 말고는 달리 우리가 옮겨갈 어느 곳도 없으니 말이요.”

마약 어장으로 출항하려는 노어부 에릭손 씨의 말이었다. 그의 말처럼 과연 《VOLCANO》라는 책자 속 사진에서도 화물선 갑판으로 피신한 주민들이 화산폭발 광경을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유람선을 타고 나온 관광객 같아 보여서 먼 동양으로부터 온 이방인을 의아하

게 만들었다. 때문에 가옥이라는 것도 마치 내전으로 피신한 아프리카 난민들의 텐트촌처럼 똑같은 크기의 조립식 단층건물들이 띄엄띄엄 줄지어 있는 정도 특이하다면 특이했다. 재차 화산이 폭발하여 흘러내린 용암이나 튀어온 불씨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웃집으로 옮겨 붙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의도에서라고 에릭손 씨는 말했다. 그는 또 아이슬란드 화산은 평균 3~40년 주기로 야료를 부린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서의 두 화산은 미구에 또 다시 주민들을 앞바다로 피신케 하는 대재앙을 불러올 게 분명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는 ‘땅투기’며 ‘일박기’ 따위의 괴이한 놀이가 없다던가.

자연은 비록 매정한 일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만큼의 혜택을 인간에게 보상해 준다던가. 섬 지하가 통째 구들장 노릇을 하는 화산섬인 덕분에 수도 레이카비크를 비롯한 도처에서는 자연이 주는 선물로 북극권의 혹한을 이겨내도록 배려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도처 어디서나 평균 80°C가 넘는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분출되고 있어서, 파이프를 끌어들인 뜨거운 물로 목욕과 세탁 등 가정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덕분에 연간 석유수입 물량의 20%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어내고 있으며, 또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온천열 재배’로 귀중한 채소류를 10% 가량 충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아이슬란드를 부자나라로 만든 것은 섬을 빙 둘러 인근 바다에 무진장 회유하는 수산자원(실제로는 엄격한 계획조업)이었다. 1천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혹한의 불모지로 에스키모인들조차 외면했던 아이슬란드에 사람이 살게 된 것도 바로 대구와 청어 등의 어자원 덕분이었음도 그 때서야 알았다.

일찌기(서기 870년경), 노르웨이의 아르나르손이라는 바이킹이 항해에 나섰다. 그가 폭풍우를 만나 표류한 끝에 표착한 곳이 곧 이름도 없는 그곳 무인도였다. 그 해 겨울을 섬에 머문 아르나르손이 이듬해 봄 떠나면서 웅얼거린 말이 바로 ‘어이구, 몹쓸 놈의 얼음땅(ice land)’ 이라던가. 그리하여 그가 내뱉은 바로 그 탄식이 오늘날의 국명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그 같은 불모의 땅에서 아르나르손 일행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근거가 곧 대구며 청어며 가지미 등의 값나가는 물고기였던 것이다. 그 천혜의 어장을 바이킹 후예들이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기회는 곧 찾아왔다. 마침 오슬로 지방에서 영주(領主)를 하던 하릴이라는 바이킹이 침탈과 노략질로 주민들을 못 살게 굴자 아르나르손이 나서서 차라리 신천지로 떠나자고 부추겨 속속 이주를 결행하게 된 게 오늘날 아이슬란드 탄생의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때에는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비로소 '살 만한 땅'으로 굳어졌다는 이야기였다.

### 내 바다는 내가 지킨다 - 영국과의 '대구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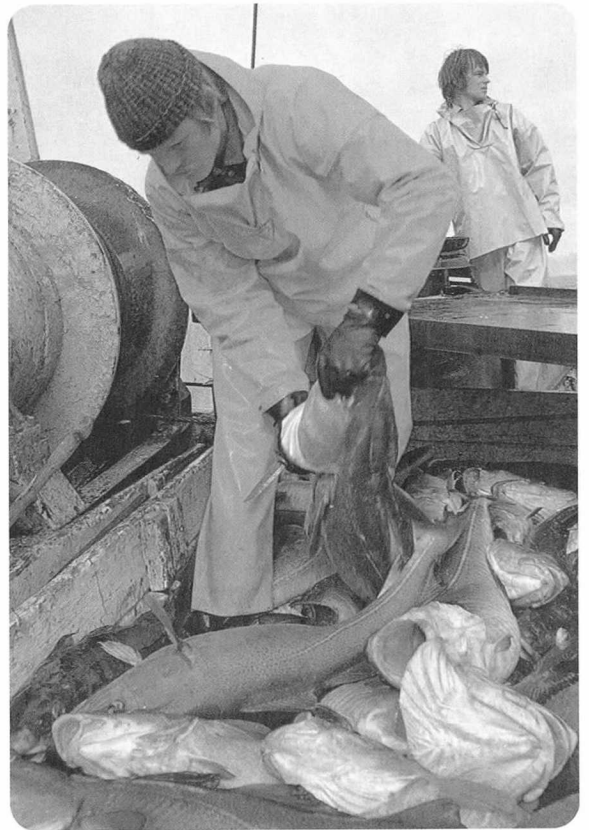
에릭슨 씨는 기관을 책임진 사촌동생 한센 씨와 열네 살 먹은 아들과 함께 30톤 남짓한 트롤선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어부 선주였다. 출어에 함께 따라나선 소년은 어제도 널찍한 부두에서 아버지인 에릭슨 씨와 함께 그물을 걷고 있었다.

그들 바이킹 후예들이 차가운 북대서양 어장에서 고기잡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원한다는 우리 제작진의 뜻을 들은 호방한 에릭슨 씨는 난생처음 TV화면에 출연하게 되었다며 오히려 쌍수로 환영해 주었다. 하지만 배가 레이카비크 항의 두 방파제 사이를 빠져나와 아직도 파스만(灣)을 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강풍과 들끓는 파도의 야료로 몽툰한 30톤짜리 '고대구릿배(소형 저인망선)'는 그만 자지러지게 몸서리를 쳐댔다.

"진짜 뱃사람은 북극해에서 그물을 끄는 우리요."

에릭슨 씨의 자랑스러운 말이었는데, '한 겨울철 북대서양을 항해보지 않은 사람은 뱃사람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오래전의 말을 필자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에릭슨 씨 것처럼 고만고만한 트롤선들을 900여 척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장이 자신들의 생명줄인 만큼 어지윈의 영속적인 보호·유지를 위해서이며,



바이킹 후예인 아이슬란드 어부들이 갓 잡은 대구를 선상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망목(網目)의 크기를 위반하거나 금어를 어기는 등의 불법적인 조업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다고 했다. 배는 비록 소형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넉넉히 고기를 잡아 얼마든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 이상의 욕심을 낼 거냐는 말인 것이었다.

에릭슨 씨는 또 어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1972년, 자신들의 생명줄인 어장을 지키기 위해 영국과 벌인 '대구전쟁'에 대한 그의 실체험이자 전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업전관수역을 당초의 4해리에서 12해리로 늘인 참이었습니다(1958년). 그런데도 몹쓸 놈의 그레이트브리튼(대영제국) 대형 트롤선들이 턱말까지 바짝 다가와 마구잡이로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지요. 그대로 놔두다가는 당장 고기씨가 마를 판인데! 그래 우리는 다시금 전관수역을 50해리까지 확대하면서 놈들의 예망 침로 앞을 가로막거나 끈줄을 절단하는 등으로 맞섰단 말입니다. 그러자 프리깃함에 구축함을 앞세운 영국해군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지 않겠소! 하

지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이라 우리는 한 발 짝도 물러서지 않았소. 우리가 뭐 군대가 있소, 무기가 있소? 겨우 경비정이 네 척뿐이고, 헬리콥터라는 게 단 두 대 뿐이었으니! 그래 우리 경비정이 겨우 21mm짜리 함포로 응사하는 한편, 고기잡이배 모두가 놈들의 대형선 허구리로 돌진하는 결사항전을 감행했어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전쟁을 꼬박 4년 동안이나 계속했소. 그 판에도 우리는 영해를 오히려 200해리로 더 늘렸구요.……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그레이트브리튼의 항복을 받아냈소!”

불과 몇 해 전의 생생하기 그지없는 회상이라 에릭슨 씨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그것은 곧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을 지켜냈다는 성취와 감격의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그 날 에릭슨 씨는 카메라에 담으라며 꼭 두 번의 투망작업을 실시했다. 어획량이라야 겨우 스무 상자 남짓하였으나, 그것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멀미에 시달리는 카메라맨을 고려하여 우정 먼 바다를 택하는 대신 손에 잡힐 듯 모항이 바라다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이다 그물을 던져 넣은 결과였던 것이다.

### 어촌이 부강해야 나라도 산다

‘3면 바다’인 우리나라 국토 역시 아이슬란드와 마찬가지로 온갖것을 바다에 의지하는 어촌으로 둘러싸여 있다.

게다가 자원도 빈약한 처지이니 화산섬이며 혹독한 기상 상황만 제외한다면 기타 여건은 아이슬란드와 다를 바 없다.

그리하여 지금껏 한가하기만 하던 우리 어항을 특수법인 체인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앞장서서 방파제를 축조하고 항내를 준설하며 정비하는 등으로 서구 어느 해양국가 못지않게 현대화를 실현시켜나가고 있음에도, 앞서의 아이슬란드 어부들과는 달리 전혀 미래를 고려함 없이 아주 무계획적이면서 분별력 없는 난획(亂獲)과 불법조업 등으로 우리 어장은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고, 더욱이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어장 판도마저 예측을 불허할 만큼 어지러운 지경에 처한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 산업의 중요한 한 동축이었던 수산업이 당치도 않게 ‘3D 업종의 하나’라는 말로 비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경제의 피치 못할 중대 고비가 된 ‘FTA시대’를 당면하고 있는 현실임에라.

그렇다고 우리 어촌이 마냥 황폐해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며,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장식해온 수산업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구상 가장 험악한 바다인 북대서양에서 겨우 30톤 남짓한 소형선으로 오늘날도 그물을 끌고 있는 바이킹 후예들의 끈질기면서도 여유 만만한 삶이 우리에게도 더욱 귀감인 것이다.

유사 이래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 골격인 어촌이 부강해야 비로소 국가도 튼실해진다는 말은 그래서 더욱 호소력을 갖는다. 